



[산업] 쇼호스트·과학해설사 AI 가상인간 활동 '종횡무진' 08



Life

[라이프] 연말까지 꼭 호텔 뷔페·객실 북적북적 11



# “통일 불씨’ 탈북민의 성공적 자립이 北 내부변화 이끌 것”



## 새벽을 여는 사람들 새터민라운지 이웅길 대표

이웅길 새터민라운지 대표를 처음 만난 건 지난 9월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마련한 탈북민 간담회에서였다. 김 전 부총리 앞에서 마이크를 잡은 그는 대한민국에서 탈북민의 삶과 필요한 정부 정책에 대해 설 새 없이 말을 쏟아냈다.

함경북도 청진에서 왔다는 그의 인생은 역동적이었다. 북한 특전사 출신이었고, 동료들과 남한 드라마를 몰래 보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이후 국군 포로를 탈북시키는 브로커를 하다 죽을 고비를 넘기고 탈북하기 위해 중국-몽골 국경까지 갔다 공안에게 적발되고 다시 복송되기도 했다.

탈북에 성공해 남한에서 7000명 규모의 탈북민 네트워크를 꾸린 이 대표는 약 30분간 이어진 전화 인터뷰에서 4만5000여명의 탈북민은 통일을 앞당길 '불씨'라고 표현했다. 그는 독일 청년들이 베를린 장벽을 무너뜨리고 서로를 열사한 것처럼 대한민국에서도 그런 날이 올 것이라고 확신했다.

이웅길 대표는 “탈북민이 남한에서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북한 내부의 변화를 일으키고 통일을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며 재차 강조했다.

**◆외로운 탈북민에 인적 교류와 정서적 지원**  
새터민라운지는 북한 함경도 출신 탈북민들이 7000명 정도 가입돼 있는 네트워크다. 정부 지원을 받는 시민단체는 아니지만 학연, 혈연, 지연 같은 것이 없는 탈북민에게 인적 교류와 정서적 지원을 하고 있다.

이 대표는 “탈북민이 한국에 가족이 있는 분도 있고, 가족이 같이 안 오고 홀로 오신 분들도 있다”며 “대한민국 사회에서 적응하기도 힘들고 명절 때라든가 고향에 가고 싶어도 못 가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위해서 2018년 2월부터 온라인 동호회 형식으로 몇 명이 모였는데, 인원 규모가 커지다 보니 지금은 규모가 7000명 정도로 성장했다”고 소개했다.

이 대표가 탈북민 네트워크에서 관심 갖고 힘쓰는 분야는 ‘탈북 여성’이다. 그중에서도 탈북 미혼모들은 육아와 일을 병행하며 한국 사회에 적응도 해야 하는 삼중고를 겪고 있다.

이 대표는 “탈북민 중에 미혼모들이 많다. 새터민라운지에서 교회나 사회적 기업을 통해 미혼모를 돕는 봉사활동을 한다”며 “또, 탈북민이 명절이 되면 많이 쓸쓸해 한다. 경제적으로 큰 도움을 주기보다는, 정신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곳을 제공하고 가족의 역할을 대신 하기 위해 모임을 지속하



이웅길 새터민라운지 대표는 북한 함경도에 출신 네트워크 새터민라운지를 만들어 그들을 돕고 정기적인 모임을 개최해 쓸쓸함을 달랜다. /이웅길 대표

**북한 특전사·탈북 브로커 출신 탈북민 탈북 시도에 압송… 총살 위기 겪기도**

**탈북민 인적 교류·정서적 지원 위해 7000명 규모 탈북민 네트워크 꾸려**

**턱없는 지원금에 한국 적응 어려워 북한 인재 활용해 통일 불씨 지펴야**

고 있다”고 했다. 이 대표는 탈북 여성의 취약한 지위를 강조하며 “화냥녀란 말을 아는가. 고려 시기에서부터 중국 원, 명, 청나라에 잡혀간 여성들이 돌아오면 손가락질을 받았다는 데서 유래했다. 지금 탈북 여성들도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중국에 팔려가는데, 똑같이 돌아오게 되면 손가락질을 많이 받는다. 북한 정권은 돌아온 여성들을 수용소나 교화소로 보내서 취약한 지위에 놓여있다”고 전했다.

또한 그는 “북한에서부터 아이를 데리고 오신 분들도 계시고, 중국에서 원하지 않은 출산을 하고 한국에 온 경우도 있다”며 “그래서 그런지 남성에게 의지를 하는 부분도 많은데 남한에서 남성을 잘못 만나 사기를 당하는 경우도 많다. 그래서 저는 행복나눔 협회를 만들어서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분들을 모으고 기부 물품을 받아서 주변에 어렵게 살고 있는 탈북 미혼모분들을 도와주는 역할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탈북 시도하다 중국-몽골 국경에서 압송되기도**

이 대표는 북한 제2의 도시 함경북도 청진 출신으로 한국의 특전사에 해당하는 부대에서 복무했다. 전쟁이 아니면 한국에 올 일이 없었다고 생각했다. 그러던 중, 군복무 시절 들었던 미국의 소리, 한민족 방송 등 과 대북 방송을 많이 들은 것이 남한

에 대한 생각을 바꾸는 계기가 됐다. 이 대표는 “대북 방송을 듣다 보니 남한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많이 다르다고 느꼈다”며 “동료들과 모여서 남한 드라마나 영화를 같이 보기도 했다”고 회상했다.

그는 북한에서 한국 돈으로 약 2000만원을 받고 국군 포로를 탈북시켜주는 브로커를 하다가 북한 보위부에 체포돼서 총살될 뻔 한 적이 있었다. 보위부에선 그에게 국군포로를 탈북시키면 국군 포로들이 남한에 가서 북한을 비방한다고 그를 꾸짖었다. 그리고 2006년 6월 탈북에 성공해 2007년 2월에 남한에 도착했다.

이 대표는 생각에 잠긴 목소리로 “그 때 이 땅에는 자유가 없다고 생각하고 탈북을 결심했다”며 “그마저도 중국-몽골 국경에서 중국군에 잡혀서 다시 복송됐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한 8개월 고생하다가 정처범수용소 가는 길에 필사적으로 탈출해 한국행에 성공했다”고 덧붙였다.

**◆쉽지 않은 한국 적응… 취약한 탈북민들 사회주의 체제에서 살아온 탈북민들이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에 적응하기는 쉽지 않다. 북한 사람들은 누구의 지시를 받고 일하는 것도 싫어하기도 하고 개인 사업을 하다가 실패하거나 사기를 당해 쓰러져 가는 분들도 많다고 이 대표는 전했다.**

탈북민의 사회 정착 지원을 위해 운영되는 통일부 산하 하나원에서 정착 지원금을 받지만, 그 돈으로 한국 사회에서 살아가는 데 턱없이 부족하다. 이 대표는 “하나원에서 주는 정착지원금 2000만원중에 1300만원은 영구 임대 보증금으로 들어가고 하나원에서 나올 때 400만원만 갖고 나온다. 그리고 1년에 세 번 100만원 씩 세 번을 준다. 총 700만원의 현금을 받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그 돈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힘든 것은 사실이다. 자본주의 나이로는 1살이기 때문”이라며 “정부에서 직업 훈련을 돕고 있지만, 남성은 배달이라든가 막일

이라든가 일용직을 많이 하고, 여성들은 잘 못된 길로 들어가면 노래방이라든가 유흥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많고 공단에 들어가시는 분들도 많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탈북민은 ‘통일의 불씨’**

그에게 탈북민은 한반도의 통일을 이끌 ‘불씨’ 같은 존재다. 그는 “탈북민은 살아 있는 불씨다. 지피기만 하면 대한민국을 자유로 활활 태워가지고 통일까지 갈 수 있는 불씨말이다”며 “북한에서 다양한 업계에서 일하던, 북한을 속속들이 아는 사람들이 지금 4만5000명 정도가 한국에 왔는데, 이 좋은 인재들을 대한민국 정부는 잘 쓰려고 하지 않는다”고 아쉬워 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들을 부지런히 훈련시키면 이 사람들이 가족들하고 연결이 돼 북한 안에 또 다른 대한민국을 만들어 놓는 것이다. 소설 같지만 실제 가능한 일이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탈북민이 남한 사회에서 성공하고 북에 남아있는 가족과 지인을 설득함으로써 북한 내부의 변화를 이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한에서도 6월 민주 항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당장 탈북민에게 돈을 달라는 것은 아니지만 탈북민들이 남한에서 성공하고 부자가 돼서 북한에 있는 주민들을 설득한다면 북한도 바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가 말한대로 통일의 불씨를 지피기 위해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를 처음 만난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와와의 간담회에서 열변을 토하고 전화 인터뷰를 할 당시에도 흥분표 당시 대선 경선 후보가 주최한 행사로 향하고 있었다. 정당이 선거 때마다 탈북민을 이용하려는 측면도 있지만 줄기차게 목소리를 내겠다는 이웅길 대표, 그가 지피는 불씨가 언젠가는 활활 타오르길 기대해 본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이웅길 대표가 국방부 앞에서 1인시위를 하고 있다.

## 바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시즌 첫 ‘맨체스터 데비’ 승자는 맨시티...호날두 침묵 /사진 뉴시스  
▲ ‘황희찬 90분 똘’ 울버햄튼, 6경기만의 패배

▲ ‘황의조·김영권 빈자리’ 어떻게 메울까...다시 모이는 벤투호  
▲ 리그 파행 부른 박석민, 현역 연장?...커지는 NC의 고민



▲ 러시아, 스위스 꺾고 빌리진 킹컵 테니스 우승  
▲ 피겨 차준환, 시니어 그랑프리 3차 대회 5위로 마무리 /사진 뉴시스